



여수 김석철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강원훈



장성 반정모



장흥 김종민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 화순군, 인구늘리기 팔 걷어붙였다

화순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인구늘리기에 팔을 걷어 붙였다.

19일 화순군에 따르면 출산·보육 전담 조직 운영 등 저출산 극복 종합대책을 비롯해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우수 인력 유출 방지, 내 고장 주소 갖기, 명품 농업 육성을 통한 귀농·귀촌 유도 등 분야별·실과소별 인구늘리기 추진정책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화순군 출산율은 2015년 기준 1.22명으로 전남에서 20번째이고,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6월말 현재 화순군 인구는 65,015명으로 1년 전인 2016년 6월말 65,731명에 비해 700여명이 줄었다.

군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가정환경개선과 출산보육인센티브, 저출산 대응 TF팀 구성 등 군 실정에 맞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왔다.

특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18일 관내 사회단체와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가정 양립 등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기업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발 벗고 나섰다.

## 분야별 종합대책 수립...인구늘리기 '안간힘' 출산보육 전담 조직 운영 등 친화적 환경 조성



군은 백신 등 바이오 의약·의료 기기 기업과 부품소재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입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 유치, 유치기업 행·재정적 지원 등을 통한 15개 기업 1천여원의 투자유치로 25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화순 이진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기초의학 교실과 의과연구소 등 교수·연구원 150명이 이진을 마쳤

고 의예과 의학과 등 학생 500명은 기숙사가 2018년 말까지 건립되면 2019년 3월부터 화순 캠퍼스에서 강의 시작될 예정이다.

군은 교육 문제로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우수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고 공동지원체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6월 전라남도 교육청과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명품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 계획 수립 주민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특히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예산 40억원을 6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우수 인력 유출 방지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군은 공직자의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비롯해 교육 관련 기관 등 유관기관의 근무지 내 주소 갖기 등 공직자와 유관기관의 군 거주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식품·공공위생업소 영업주의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동참을 유도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입을 추진하는 등 군에 시설의 주소를 두고 운영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주민등록 전입을 유도해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이 밖에도 농업·농촌의 실질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귀농인 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펼쳐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 광양시, 토양정밀검정 실시

진월면 월길지구 시설하우스단지 120ha 대상

광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진월면 월길지구 시설하우스에서 발생하는 염류집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양정밀검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양정밀검정은 3기작/년(양상주-수박-양상주, 양상주-수박-수박) 연작재배로 인해 많은 비료 사용으로 양분이 집적되어 작물의 생육이 저하되는 등 매년 염류집적피해 발생으로 농가소득 감소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작기가 끝난 진월면 월길지구 시설하우스 단지 120ha, 200 농가를 대상으로 양상주와 수박 등 시료를 채취한다.

채취된 시료는 토양의 산도

(pH),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칼륨, 칼슘, 마그네슘), 전기전도도, 규산, 석회함량 등 분석을 거친다. 시는 이번 토양정밀검정 결과를 토대로 시비처방서를 발부하고 토양관리와 올바른 시비관리 요령에 대한 내용의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남일 식량작물팀장은 "이번 정밀검정을 통해 과다한 비료사용과 연작으로 인한 시설하우스 농가들의 염류집적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에서도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광춘 기자



## 순천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개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일반인건 등 처리

순천시의회의는 18일 제21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7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임종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일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시의회의에 항상 진심어린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2017년 전국지방자치 행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우리시의 위상을 높인 것에 대해서도 28만 순천시민과 함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216회 순천시 의회가 출범한지 3년의 기간 동안 조례안 369건, 예산안 및 결산안 20건, 일반의안 229건 등 총 61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역대 어느 의회에 비해서도 역동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자부심을 보이며 남은 1년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찬 삶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번 제216회 임시회는 18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부서별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17건, 공무제안 취득계획안 3건 등 총 22건의 주요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 할 계획이다.

순천=김종영 기자

## 순천시, 도시재생 공공건물 새이름으로 재탄생

순천시는 도시재생공공주택100호의 체 주관으로 시민공모를 통해 원도심 공공건물 세 곳의 명칭을 최종 선정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시민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될 옛 승주군청과 안력산병원 격리병동, 구 장안식당 건물은 모두 순천 원도심에 위치한 공공건물로서 그 기능이 바뀐에 따라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먼저 영동번지에 위치한 옛 승주군청의 새 이름은 지리적014역

사적 상징성을 담은 '생활문화센터 영동번지'로 선정됐으며, 이곳 건물은 그대로 살린 채 구조안전진단과 리모델링 후 오는 11월부터 청년 활동공간과 생활예술학습실 등 열린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청수골에 위치한 순천 최초 근대 병원이었던 인력산병원 격리병동은 의료전사관과 주민의료서비스, 주민 사랑방 용도의 기능적 측면이 강조된 명칭인 '인력산 의료문화센터'로 선정됐다. 이곳 역시 최근 원형 그대로 복원했고, 오는 9월까지 의료

장비 등을 갖추어 10월부터 주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문화의 거리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구 장안식당은 '음력창작마당'으로 새 이름이 부여됐다. 건물뿐만 아니라 너른 마당까지 작가와 지역 주민들의 창작예술공간으로 새롭게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명칭 공모는 순천시민들에게 155건의 명칭을 제안받아 심사위원회 심사와 시민선호도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명

칭에 대해서는 최우수상과 함께 30만원 상당의 은누리 상품권이 지급되며, 우수상 6명, 장려상 9명에게도 각각 10만원, 5만원 상당의 은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명칭공모를 주관한 순천시 도시재생 공공주택100호체 관계자는 "명칭 공모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원도심과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보여준 점에 감사하다"며, "원도심 곳곳이 시민들이 편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주민들과 함께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종영 기자

## 광양교육지원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광양교육지원청은 17일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스페인의 5개 언어권 초·중학생 20명이 참가하는 '제5회 광양지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진행하였다.

올해로 5회째를 맞고 있는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는 다문화가정의 학

생들이 한국어와 함께 부모 나라의 언어인 모국어로 2~3분씩 자유롭게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어머니의 나라인 모국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을 제고 하였으며 언어 재능의 조기 발굴을 통해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하였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발표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모국어에 대한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의 경우의 △토마토 계란 볶음밥을 소개합니다. △다문화 우리 집, 우리 가족 사랑해요. △나의 꿈과 미래 △나의 꿈은 변호사입니다 등의 주제가 다양하였다.

중학생의 경우 △나의 꿈은 반도체 기술사 △한국에 와서 생긴 저의

진로와 꿈 △저의 꿈은 통역사입니다 △미래의 천재물리학자 등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계되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1명은 오는 9월에 열리는 제2회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 광양시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전남동부청재본부장=김승호 기자

사랑중심·생명중심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 당신의 작은 배려가 선진 교통공동체를 만듭니다!

- 운전자를 배려하는 '방향지시등 사용'
- 보행자를 배려하는 '정지선 지키기'
- 통행인을 배려하는 '무단횡단 안하기'